농림축산식품부	보도참고자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3. 1. 27.(금) 12:00	배포 일시	2023. 1. 27.(금) 09:00
담당 부서 <총괄>	식량정책관실 식량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보람 (044-201-1831)
		담당자	사무관 박성용 (044-201-1842)

쌀 소비량 감소 폭 축소, 안정적 쌀 수급관리 도모

- 통계청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1.27일 발표) 관련 -

통계청이 1.27일 발표한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에 따르면 2022년 가구 부문의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7kg이며 이는 전년 56.9kg 대비 0.2kg(0.4%) 감소한 수준이다.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은 감소하였으나, 전년 대비 감소율은 0.4%로 2019년(3.0%), 2020년(2.5%), 2021년(1.4%)보다 소폭 감소하였다.

물가 상승에 따른 외식비 부담과 국·찌개·탕 등 가정간편식 시장 확대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 쌀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1인 가구의 소비량 감소가 크지 않았던 점 등이 쌀 소비량이 크게 줄지 않은 원인으로 분석된다.

다만, 1인당 쌀 소비량이 작년과 같이 소폭 감소로 유지될지는 과거 사례*,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 '17년 쌀 소비량 감소율은 전년 대비 0.2%로, 10년 평균 감소율(2.4%) 대비 크게 완화되었으나, '18년 1.3%, '19년 3.0%로 다시 증가하여 '22년 기준 10년 평균 감소율은 1.9% 수준

** 대만은 1인당 쌀 소비량이 44.1kg, 일본은 50.7kg 수준

< 가구 부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추이 >

(단위 : kg/인)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소비량	61.8	61.0	59.2	57.7	56.9	56.7
증감량 (%)	△0.1 (△0.2%)	△0.8 (△1.3%)	△1.8 (△3.0%)	△1.5 (△2.5%)	△0.8 (△1.4%)	△0.2 (△0.4%)

한편 2022년 사업체 부문의 가공용 쌀 소비량은 총 691천톤으로 2021년 680천톤 대비 11천톤(1.7%) 증가하였다.

업종별로는 식사용 조리식품, 장류, 당류, 곡물 가공품(누룽지 등)의 수요가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였고, 면류(△8.3%)·주정용(△20.6%) 수요는 감소하였다. 특히 즉석밥 등 식사용 조리식품*의 수요는 전년 대비 27.2% 증가하여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식사용 조리식품 쌀 소비량 : ('19) 98천톤 → ('20) 103 → ('21) 114 → ('22) 145

< 사업체 부문 쌀 소비량 추이 >

(단위 : 천톤)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소비량	708	756	744	650	680	691
당류	12	13	13	11	11	12
떡류	169	172	177	159	177	185
면류	14	18	20	20	22	20
도시락류	-	-	47	40	47	47
식사용 조리식품	-	-	98	103	114	145
주정	216	188	191	158	153	122
증감량 (%)	49 (7.4%)	48 (6.8%)	△12 (△1.5%)	△94 (△12.6%)	30 (4.6%)	11 (1.7%)

농림축산식품부는 통계청의 쌀 소비량 발표에 따라 올해 쌀 수급상황을 다시 추정한 결과 '23년의 쌀 추정 수요량은 367만톤으로, '22년산 쌀 생산량 376만톤과 시장격리 계획(37만톤)을 감안하면 수요에 비해 약 28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초에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시장격리곡 매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는 등 수급관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 1월 말 기준 당초 계획량 37만톤 중 30만톤 매입 전망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전 국민이 참여하는 소비 캠페인을 추진하여 쌀의 긍정적 가치를 확산하겠다”라며, “올해는 가루쌀을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하여 쌀가공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 개발, 소비판로 지원, 수출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요약)

담당 부서 <총괄>	식량정책관실 식량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보람 (044-201-1831)
		담당자	사무관 박성용 (044-201-1842)
	식량정책관실 식량정책과	책임자	과 장 변상문 (044-201-1810)
		담당자	서기관 조은지 (044-201-181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2022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요약)**

[가구 부문]

'22년 1인당 연간 **양곡(쌀+기타양곡) 소비량은 64.7kg**으로 '21년(65.0kg) 대비 0.3kg(△0.5%) 감소

쌀 소비량*('22: 56.7kg)**은 '21년(56.9kg) 대비 0.2kg 감소**, 기타 양곡 소비량('22: 8.0kg)은 '21년(8.2kg) 대비 0.2kg(2.4%) 감소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은 '82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 30년전('92년 112.9kg)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

<1인당 연간 양곡소비량>

(단위 : kg, %)

연도	양곡 계	쌀 소비량	기타양곡 소비량	보리쌀	밀가루	잡곡	두류	서류
2013	75.3	67.2	8.1	1.3	1.3	0.8	2.1	2.7
2014	73.8	65.1	8.7	1.3	1.2	1.0	2.5	2.8
2015	71.7	62.9	8.8	1.3	1.2	1.1	2.8	2.5
2016	71.2	61.9	9.3	1.4	1.2	1.2	2.6	2.8
2017	70.9	61.8	9.1	1.3	1.2	1.4	2.2	3.0
2018	69.5	61.0	8.4	1.3	1.1	1.5	1.9	2.6
2019	67.4	59.2	8.2	1.4	1.1	1.2	1.7	2.8
2020	66.3	57.7	8.7	1.4	1.1	1.1	1.9	3.1
2021	65.0	56.9	8.2	1.6	1.1	1.0	1.7	2.9
2022	**64.7**	**56.7**	**8.0**	**1.6**	**0.9**	**0.9**	**1.7**	**2.9**

[사업체 부문('11년부터 조사)]

사업체 부문 연간 쌀 소비량은 691천톤으로 전년(680천톤) 대비 1.6% 증가

업종별 쌀 소비량은 떡류 제조업 185천톤(4.7%↑),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 145천톤(27.2%↑), 주정 제조업 122천톤(△20.6%) 등의 순임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1,540 가구(농가 640, 비농가 900), 2,801개 사업체
- 조사대상기간 : 2021. 11. 1. ~ 2022. 10. 31.(2022년 양곡년도 기준)
- 조사방법 : 가구(농가, 비농가)에서 소비한 양곡의 중량을 조사
  - 사업체 부문은 제품 제조과정에 원료로 사용되는 쌀(찹쌀 포함)의 소비량만 조사